

2023년 11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 대전MBC

1. 회의개최

연번	일시	장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국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1	'23.11.28.	대전MBC 4층 회의실 (대면회의)	7/10	5	2	14	○		

○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손병우 위원장, 박주영 위원, 김정동 위원, 장래숙 위원,
이인복 위원, 김영진 위원, 윤지석 위원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 : 김환균 사장, 서주석 전략기획실장, 최기웅 보도국장,
이상욱 편성국장, 정수진 인프라국장
- 경영진 외 : 이은표 간사, 이재근 실무담당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4	6	-	-	10	-	10

나. 사업자 반영

구분	수용	의견참고	반론	합계
건수	10	-	-	10

다. 전월(10월)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보도	<보문산 개발 민자사업 보도> 민자유치가 핵심이 아니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가 핵심임. MOU라는 협약이 이름으로 끝날지 실제 의미있는 투자 협약인지 꼼꼼한 관심 부탁	민자사업에 수익을 보장하려다 보면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 있음. 이 정책이 어떻게 입안되고 진행되는지 주시하겠음. <23. 11월 조치>	'23.10월
보도	<뉴스 진행 부주의> 뉴스 화면이 넘어간 줄 알고 앵커가 원고를 읽는 장면이 화면에 두 번 잡혀서 부자연스러웠음	원고를 숙지하고 들어갈 수 있게 시간을 갖게 하고 전달력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모니터링 하겠음 <23. 11월 조치>	'23.10월
보도	<공주보 수문 개방 보도> 보물 찬성하는 농민들의 이야기와 환경부의 의견도 균형 있게 다뤄주길	문제점들을 환경부가 모니터링한 후 당수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정책적 일관성이 없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들여다보겠음. <23. 11월 조치>	'23.10월
보도	<가을 산불을 막아라 보도> 산림을 보존하기 위해 간벌을 못하게 하지만 반대로 간벌을 통해 산불을 예방하는데 이 부분도 다뤄주길	다양한 이슈와 인력적 한계가 있어서 이면까지 취재하지 못했음. 현안에 대한 기획취재에 좀 더 노력하겠음 <23. 11월 조치>	'23.10월
교양	<인생내켓> 성성당 편은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전국에서 봤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	현재 강원권과 전남권하고 교환을 하고 있는데 더 확대해 나갈 예정임 <23. 11월 조치>	'23.10월
교양	<내셔널로드 No37- 타이틀> 타이틀의 의미가 시청자들에게 잘 와 닿지 않음. 시리즈물로 지역을 돌면서 하면 어떨지	No 37 국도 주변 이야기를 발굴하려 했음. 이 부분은 확정해서 다른 지자체들의 국도 주변 이야기를 브랜딩시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음 <23. 11월 조치>	'23.10월
교양	<금산 일기 - 구성> 각 챕터별로 정보성에 대한 균형이 잘 맞지 않았고, 이치대첩과 아들에 대한 구성도 아쉬움	각 챕터간에 일관성이나 균형성 부족했던 점 인정함, 다음번에 가감없이 반영토록 하겠음 <23. 11월 조치>	'23.10월
교양	<시사M-대전 선거구 증설 > 대전지역의 국회의원 수 문제를 심도 있게 지속적으로 다뤄주길	대전에 근거를 둔 방송사로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음 <23. 11월 조치>	'23.10월
교양	<시사M-의대 정원 증원> 의사나 의료계를 대표하는 사람이 출연해서 양쪽 의견을 균형 있게 다뤄 주었으면	논의 시작단계라서 본격적으로 다른 건 아니고 정리하는 차원이었음. 정부대책이 나오면 더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음 <23. 11월 조치>	'23.10월
기타	<장사 60주년 기획 관련> - 방송했던 프로그램과 보도 기획 - 대전MBC 자산을 이용한 행사나 프로그램 (어린이합창단 등) - 대덕특구 50주년 다큐 또는 행사 - 백제 관련된 아이템 프로그램 제작 - 그동안 함께한 60인을 모아 방송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자연과 과학 두 가지 장점을 믹스한 기획 - 각 지역의 축제 탐방 - 이치대첩 재조명 - 충청도의 해학과 함축적인 언어 - '노쟁' 브랜드 활용 - 60주년을 기억하는 추억의 공모전	- 충청의 언어, 내 삶과 MBC 그리고 이전의 MBC를 기억해 내면서 브랜드화 하는 부분들을 더 디테일하고 밀도 있게 기획해 보도록 하겠음. - 저희가 놓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역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갈등을 통합하는 방송을 하도록 하겠음. - 소년소녀합창단을 활용한 행사나 대전 MBC와 함께 성장한 사람들과 같이 호흡하는 방송을 만들 예정 - 전체적으로 정리되면 말씀 드리겠음 <23. 11월 조치>	'23.10월
기타	<시청자게시판 의견 관련> 홈페이지 운에어가 자주 끊김. 자주 정검 좀 해주길 바람	시스템 업데이트를 하면서 발생한 문제로 보이는데 실시간 스트리밍 장비 업데이트로 문제 해결함 <23.11월 조치>	'23.10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청 내용	조치 내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2000.0 ~ 2000.0)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 (임기)
		해당사항 없음		

3.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평가기준	해당여부
2023년 11월에 집계된 시청자 불만사항 회의 전 고지	○
시청자위원 및 임원진이 함께 공유하는 온라인 대화방 개설	○

4. 기타사항

-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대전MBC 홈페이지 공개

나. 시청자위원 명단 (임기 : 위원별 상이)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문	비고 (임기)*
위원장	손병우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사)한국언론정보학회	언론단체	23.05.01~25.04.30
부위원장	박주영	대전지방변호사회 부회장	대전지방변호사회	변호사단체	23.05.01~25.04.30
위원	마정미	한남대학교 정치언론학과 교수	충청언론학회	언론단체	22.05.01~24.04.30
위원	김정동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소외계층대변	22.05.01~24.04.30
위원	박미숙	(주)비앤비컴퍼니 대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지회	경제단체	22.05.01~24.04.30
위원	장래숙	대전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대전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단체	23.05.01~25.04.30
위원	김영진	사회적협동조합혁신청이사장	대전청년내일센터	소외계층대변	23.05.01~25.04.30
위원	이인복	원도심문화예술행동 사무국장	원도심문화예술행동	문화단체	23.05.01~25.04.30
위원	윤지석	대전광역시의회사회 부회장	대전광역시의회	과학기술단체	23.05.01~25.04.30
위원	이진희	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협회장	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인권단체	23.05.01~25.04.30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	답변내용	비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글로벌대학 관련 보도> 글로벌대학 선정에 대전 충청 대학이 빠져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후속 보도를 해주었으면 함	회의록 첨부	○		
보도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 보도>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만 인식되지 않게 그 피해 예방을 위한 방법 등 객관적으로 다루어 주었으면 함	회의록 첨부	○		
보도	<대전시 회의 보도 영상> 대전시장의 회의 장면에 지난번 명예퇴직한 행정부시장이 보이던데 자료영상이 적절치 않아 보임.	회의록 첨부	○		
보도	<지자체 예산 관련 보도> 예산안이 통과되기 전에 시민들이 예산안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사전에 보도해 주길 바람	회의록 첨부	○		
교양	<시사M-전동킥보드 관련> 전동킥보드는 젊은이들의 운송수단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나쁜 시각보다는 좋은 시각으로 지향할 부분들을 방송해 주었으면 함	회의록 첨부	○		
교양	<인생 내컷> 1인칭 시점 휴먼다큐멘터리인데 미혼모시설 관련 내용은 시설안내가 너무 많아 지루했음. 휴먼에 포커스를 두었으면 함.	회의록 첨부	○		
교양	<금산일기> 박순천씨가 할머니와 할아버지하고 인상을 까는 모습이 있었는데 머리위에 걸친 선글라스가 너무 어색해 보였음.	회의록 첨부	○		
교양	<시사M-사회 문제 발생 원인 관련> 사회 현상에 대해 주제를 잘 잡으셨는데 왜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건지 포커스를 주셨으면 함	회의록 첨부	○		
교양	<라디오 다큐-부모부양보고서> 드라마타이즈 설정에서 차매부모 부양은 효녀 효자들도 힘들다는 보편적인 접근과 TV매체에서도 다루어 주었으면 함.	회의록 첨부	○		
교양	<시사M - 진행자> 2명의 진행자중 한분은 전문 진행자가 아니다 보니 몸을 좌우로 흔드는 습관이 있어 불안해 보임	회의록 첨부	○		

2023년 11월 대전MBC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 일시 : 2023년 11월 28일(화) 오후 4시

□ 장소 : 대전MBC 4층 대회의실

□ 시청자위원회 참석자 : (총 7명)

손병우 위원장, 박주영 위원, 김정동 위원, 장래숙 위원,
이인복 위원, 김영진 위원, 윤지석 위원

□ 회사 참석자 : (총 7명)

김환균 사장, 서주석 전략기획실장, 최기웅 보도국장,
이상욱 편성국장, 정수진 인프라국장, 이은표 간사, 이재근 실무담당

□ 회의록 전문

이은표 간사

오늘 회의는 총 10분 중에 7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시청자 게시판 의견 접수 결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쇄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온 의견은 모두 4건이고요. 영상 자료 구입 문의, MBC 세종 통합 관련 문의, 뉴스 용어 사용에 대한 오류, 홈페이지에 라디오 편성표 수정건입니다. 모두 답변 완료하고 처리를 하였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질문이 있으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11월 시청자위원회 정기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환균 사장님 인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환균 사장

내년이 대전MBC 창사 60주년인데 이 자리에서도 여러 번 의견도 여쭙고 그랬는데 뭔가 올해 수확이 풍성했더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마는 연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미진한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기대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잘 대처했던 것도 있습니다.

방송 콘텐츠 외에 지난주에 소년소녀합창단 창단공연을 했습니다. 불과 8개월 만에 한 건데 정말 예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전MBC가 공익사업으로 해나갈 만한 일이구나 하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년 60주년을 맞아서 소년소녀합창단 뿐만 아니라 다른 공익적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고민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표 간사

이번에는 시청자 위원을 대표해서 손병우 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병우 위원장

매월 시청자위원회를 하면 한 달이 다 갔구나 하는 그런 표시가 되는데 이제는 겨울의 문턱에 들어서서 한 해가 다 갔구나 하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조금 전에 <열린TV 미디어리뷰> 인터뷰 촬영하고 올라왔는데요. 2023년도에 대전MBC에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었구나 생각했고 2024년도를 준비하고 계신 모습도 보고 왔습니다. 오늘 시청자위원회를 통해서 좋은 의견 많이 나누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모니터 결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윤지석 위원님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석 위원

<시사M>에서 전동 키포드 관련 내용을 봤는데요. 아주 좋은 방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전에 네덜란드 학회를 갔을 때 네덜란드는 자전거가 하나의 운송 수단으로 자리를 잡고 도로도 따로 있고 법률도 있다고 가이드한테 들었는데 전동 키포드도 싫든 좋든 우리 젊은이들에게 운송수단이 되고 있는데 아주 시의 적절한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쁜 시각보다는 좋은 시각으로 안전하게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촬영하고 편집해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있는 모습만 보여주지 말고 개선시키거나 좋은 쪽으로 나가는 매의 눈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사회가 나아가고 지향할 것들을 봐줬으면 하는데 학생들이 몇 퍼센트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지 자료로 방송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들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개선점으로 기자분들이 키포드 이용료 속에 보험료도 얼마가 되는지 제시를 한다든지 또는 키포드 속도가 안 올라가도록 20kg 이내로 하고 야간에는 15kg, 프랑스 같은 경우 아예 구역을 정해서 GPS로 그 지역에 들어가면 10km 이내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제시를 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젊은이들의 좋은 미래 운송 수단으로서 이용할 건데 그런 면에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글로벌 대학 선정에서 대전 충청 지역이 빠졌는데요. 부울경 지역은 5개, 전북 전남은 2개, 강원 2개, 충북 1개인데 대전 충청 지역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레이션만 하던데 왜 이렇게 됐는지 심층적으로 후속 보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9 구급대원들 폭행 관련해서 손종학 교수님께서 공권력을 대하는 국민들의 인식 제고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전MBC가 공영방송으로서 공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제고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품위가 올라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월 9일 원도심 살리기를 심층 취재했는데 사실은 중구쪽으로 넘어오면 은행동 재개발도 안 되고 중앙로역 NC백화점 건너편에 있는 전 한일은행 건물, 메가시티 건물도 지금 수십 년째 휴가로 있거든요. 그 옆에 있는 옛 상공회의소 건물도 계속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곳도 같이 다뤄졌으면 좋겠는데 대전역만 다룬 것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인생 내컷>은 보면 볼수록 나만 보기에 너무 아까운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사진작가 김종범 편, 영상이 참 아름답고 사진작가로서의 인생철학도 같이 녹아 있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빛의 화가 김인중 신부는 제가 평소 때 관심을 가졌던 분이었는데 그 김인중 신부님의 빛섬 갤러리를 방송한 것도 아주 좋았습니다. 충남 부여, 청양, 자양동 성당, 전북, 경기도, 용인, 그리고 출연한 사람들도 학생, 일반인, 외국인 스님까지 다 나와서 정말로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청양에 있는 빛섬 갤러리를 대전으로 모셔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대전MBC가 그 역할을 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우 위원장

저도 카이스트에 있는 김인중 신부님 작품을 충남대로 가져오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다음은 박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박주영 위원

<시사M>을 많이 봤는데요. 주제가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대전에 관심 가질 만한 것들을 일단 분석해 주신 것도 좋았어요. 트램에 대해서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주신 것도 좋았고 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신 부분도 관심을 갖고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부석사 불상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결이 최근에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한 언급도 있었고 결국 해결은 법을 떠나서 어떤 정서나 이런 걸 고려해서 외교적인 노력으로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마무리되는 부분도 적절한 문제 제기 아닌가 싶었습니다.

전동 키포드는 검찰에서 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정도로 진짜 범법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면허 없이 타고 다니고 음주에 대한 사례도 설명하셨는데 학생들이 타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합의하려고 부모님들이 애쓰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형사 처벌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설명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11개 업체 중에 한 군데 빼놓고는 다 면허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대여 과정에서 보도하시던데 주무부서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지도 감독을 환기시킬 수 있게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언급을 했으면 행정관청에서 신경을 쓰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헬멧은 다른 사람이 쓰는 것이다 보니까 요즘 코로나가 훑고 간 다음에는 다른 사람하고 신체 접촉되는 게 싫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썼던 헬멧은 사실 쓰기가 어려워져 대부분 안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의 어떤 참신한 아이디어나 고민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생각도 했습니다.

뉴스에서 고등학교 선생님 피습 사건 1심 선고 보도를 하셨는데 요즘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정서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신질환에 대해서 감경을 주장하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사실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처럼 원인이 확실한 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는 건 치료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런 분들은 무조건 벌을 주는 게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교도소에 방치되면 사실 더 큰 범죄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여론에 있어서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보도하실 때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이렇게 잠재적 범죄자로만 인식하는 건 조심스럽다는 인터뷰가 있어서 나름대로 균형을 맞추려고 하셨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 사안에 있어서는 그런 객관적인 시각도 언급을 계속해 주셨으면 하고 이렇게 언론으로 이슈가 돼버리는 사안에 대해서는 여론이 워낙 감형을 하려는 꿈수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는 치료 감호라고 해서 정신 감정조차 의뢰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더 큰 사회적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범죄에 맞는 예방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항상 신경을 써서 보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보도는 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우 위원장

네 다음은 장래숙 위원님 말씀해 주실까요

장래숙 위원

8시 뉴스에 청소년들의 동물 매개 치료 사업에 대한 뉴스가 나왔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저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청소년 관련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뉴스를 보면서 느꼈던 것인데 지역 뉴스를 보는 이유는 지역의 현안과 어떤 일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보거든요. 근데 대전시에서는 타 시도에 비해서 그날에 있었던 행사라든가 어떤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제 이 뉴스를 보고 대전MBC가 발로 뛰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기뻐요.

다만 아쉬운 건 그날 방송에 대전시장님이 공무원의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하면서 회의하는 장면이 영상으로 나갔는데요. 거기에 이택구 행정부시장님이 같이 있더라고요. 화면을 중폭해서 쓰는 것은 매번 보긴 해요. 대전MBC에서 지난번 이택구 행정부시장님 출마관련해서 뉴스를

내보내셨는데 시장님 회의하는 장면이 이택구 행정부시장님 보이는 건... 그리고 JMS 정명성에 관련된 소식도 매번 MBC가 많이 내보내시더라고요. 소송 상황이 계속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 조금은 궁금하지 않은데요 화면도 똑같은 걸 내보내세요. 항상 똑같은 화면을 계속 보고 있어요. 물론 다른 화면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건 안 내보내셔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화면이 계속 중복적인 것들은 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아침에 <인생 내컷>을 봤어요. 자서전이나 회고록의 형식을 빌린 1인칭 시점 휴먼 다큐멘터리인데 미혼모 시설에 대한 콘셉트는 좋아요. 미혼모 시설의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며 미혼모 생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좋은데 중요한 건 1인칭 시점에서 그 대표의 인생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대표의 인생 것이 별로 없었어요. 시설에 대한 안내 그리고 반 정도는 미혼모가 자립하기 위한 것들이 나왔는데 그것도 많이 나오지 않고 혼자 커피숍에 앉아 있는 시간이 너무 길었고 그 다음에 1인칭 시점인데 대부분 PD가 물어봐요. 물어보고 대답하는 형식이 많아서 지루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미혼모 시설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인생 내컷>에서 추구하는 휴면에 포커스를 두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가로 <금산일기> 관련해서 박순천 씨가 아들하고 같이 나왔는데 굉장히 어색했어요. 아들은 거의 말을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아들과 동행하면서 길을 걷는 테마적인 그런 영상을 넣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같이 앉아서 인삼을 까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때 박순천씨가 선글라스를 머리 위에 걸쳐 있었거든요. 저는 그게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토속적이고 인간적인 부분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박순천씨가 조금 부족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우 위원장

날카로운 지적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정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정동 위원

저는 <시사M>과 보도 관련해서 하나씩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시사M>은 꾸준히 지켜보고 있는데 주제도 다 잘 잡으셨다고 생각은 해요. 특히 악성 민원 건 관련해서 소방이나 일반 행정까지 사회 문제로까지 올라오고 있다고 보이는데 현상에 대해서는 잘 잡으셨다고 보지만 왜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건지는 포커스를 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최근 학교 내 문제도 그렇고 악성 민원도 다 연결된 부분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시대 변화에 따라서 과거에는 선생님과 학부모의 관계에서 선생님의 권한이 훨씬 큰 상황이었고 지금은 완전히 반대로 역전됐고 공무원도 비슷하다고 보이는데 근데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반대로 역전이 됐고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바뀌게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답은 없겠지

만 같이 고민하는 내용을 던져주셔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런 걸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부분에 대해 지적해 주신 건 정말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도 관련해서는 예산 시즌이다 보니까 정부 예산하고 자치단체 예산에 대해서도 보도가 한 꼭지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바쁘시겠지만 예산안이 통과된 후엔 늦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안이 의회로 넘어간 상황이라 집행부에서 어떤 예산을 짜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에게도 내용들을 알리고 시민들도 그걸 보고 의원이나 시에도 의견을 낼 수 있는 이런 과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 확정되고 나가면 바뀔 수 있는 게 전혀 없다 보니까 언론에서 이런 부분도 짚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병우 위원장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인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이인복 위원

정신없이 오다보니까 아직 정신이 안 돌아온 것 같아요. 뭘 말씀을 드려야 될지 일단 회의 진행하시면서 생각나면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병우 위원장

이번에 <부모부양보고서> 방송 안내가 있었는데요. 저는 <부모부양보고서>에 대해서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중 신부님 편이라든가 몇 편의 프로그램들을 TV로 봤는데요. 라디오 프로그램들은 보통 소외되는 경향이 있는데 <부모부양보고서>를 보면서 제가 지금 그런 상황에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요.

초고령화가 되면서 어느 가정이나 연세가 드신 부모님 혹은 치매 부모님을 부양해야 되는데 그래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서 많은 도움도 받게 되고 대전의 경우에는 이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케이스를 통해서 그 전부터 얼핏얼핏 듣기는 했지만 조금 더 자세히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나준식 의사와 그 분들이 지역 화폐 운동에도 참여하시고 민들레 의료협동조합이라는 게 있는데 주간보호시설에 방문 진료도 하시고... 조금 더 어려워지면 가는 곳이 요양보호시설 그 다음에 요양병원... 이 단계로 되어 있는데 요양보호시설과 의료의 결합이라고 하는 민들레에서의 시도와 그 인근에 자가가 가능하신 분들은 고령자들에 대한 가족들의 돌봄과 이런 사회시스템적인 돌봄이 협업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민들레에서 뭔가 지향하는 것도 그런 건가 하는 드라마를 들으면서 좋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3부작을 쭉 듣다 보니까 몰랐던 개념들을 알게 됩니다. 사회적 입원이라든가 전문가들의 인터뷰도 나오고 저희 처가는 장모님이 치매시

고 저희는 어머니한테 요양보호사가 오시는데 굉장히 공감하면서 들었습니다. 청취자들의 수요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부양보고서>는 아주 훌륭한 시도라고 생각을 했고 끝까지 듣다 보니까 1부보다 2부가 더 낮고 2부보다 3부가 낮더라고요. 점점 내용이 구체화되고 더 요긴한 정보들이 나와서 뒷부분으로 갈수록 좋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부에서 드라마타이즈로 시작을 하는데 그 설정이 삼남매가 있고 맏아들은 '우리 사정 뻔히 알지 않니' 방이 없다고 하고 그 다음에 둘째 언니는 외국에 이민 가 있고 그러다가 몸이 아픈 막내딸이 할 수 없이 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이런 드라마타이즈의 설정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많이 본 설정이어서... 그리고 자식들이 부모를 외면하는 상황이 힘든 것이 아니라 사실은 효자효녀 4남매가 있어도 넷이 하루씩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데이케어센터를 보내고 모시고 오는 것도 힘든데요.

가족들이 외면하고 있는 고령자 문제로만 희석되지 않고 우리 사회가 안고 해결해야 하는 아주 보편적인 문제로 효자 효녀들도 힘들다 하는 그런 설정으로 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설정의 아쉬움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요긴하게 받아들일 그런 청취자들이 많이 있을 텐데 라디오 매체에만 던져놓게 되면 청취자들의 유입에 매우 한계가 뻔하기 때문에 TV 프로그램에 매거진프로그램, 보도프로그램 또는 다른 프로그램들에서도 관련된 이슈를 서로서로 시차를 두고 다룸으로써 어느 한 프로그램이 그 연계된 다른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나 청취자를 더 유입시킬 수 있도록 안내 역할을 해주는 그런 방식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쓰면 어땠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2025년이 되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 의료에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거든요. 전에는 환자가 병원을 찾아오는 거였다면 이제는 의사가 환자한테 다가갈 수 있는 패러다임 시프트를 국가에서는 아무튼 그쪽으로 가도록 하고 있고 현재 의사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들레 생협'에서 그걸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대덕구가 중심이 돼서요. 의사 단체 입장에서 보면 민들레 생협이 아도를 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대덕구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혼자 다 독단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의 의사들이 접근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대덕구를 제외한 타 구는 자유롭게 의사들이 접근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들레 생협을 다루는 데 있어서 좋은 일은 하고는 있지만 그것을 제3자의 시각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게 의사들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인복 위원님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이인복 위원

네 저는 오늘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손병우 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영진 위원

오랜만에 다시 부활한 시사프로그램 <시사M>을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지역에 필요한 이슈들을 중심으로 다루고 뉴스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들을 더 깊게 다루는 면에서 긍정적입니다. 다만, 2명의 진행자 중 한 분이 전문 진행자가 아니다보니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고, 다른 진행자가 이야기할 때 자꾸 몸을 좌우로 흔드는 습관 때문에 프로그램의 전체 진행이 불안해보였습니다. 앞으로 진행과 관련하여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보도 부분에서는 지역화폐 관련 뉴스를 주로 봤는데요. 정부가 바뀌면서 지역화폐 예산이 축소되거나 없어지는 뉴스였습니다. 주로 지역화폐로 인한 캐쉬백 혜택이 없어지는 게 아쉬운 목소리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지역화폐가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개선에는 어떤 효과가 있었고 예산 삭감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도 같이 다루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병우 위원장

위원님들의 의견은 다 들었고요. 그에 대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편성국장

먼저 많은 분들이 언급해 주신 <시사M> 전동킥보드 관련해서는 실제 PD가 계속 나갔습니다. 어떤 상황들을 취재하기 위해서인데 그게 안 되는 경우는 CCTV나 블랙박스를 참고하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문제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 사회가 대처해야 되는가를 같이 고민해 보자고 노력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 건 저희가 단시간 내에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운전자와 보행자분들한테도 위험한 상황이 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시사에서 다룰 아이템들이 도시재생 원도심 대전역 부분, 악성 민원 그리고 전동 킥보드 이런 것들이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전세 사기가 세종하고 대전에서 새롭게 드러나서 다루려고 하는데 어쨌든 <시사M>에서는 지역민들의 생활에 밀착된 이슈들 그리고 지역 고유의 이슈들에 대해 그 원인과 대안에 대해 다루려는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 태도 부분도 제작진에게 전달해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내컷>관련해서 윤지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빛섬 갤러리 대전으로 모셔오는 부분은 저희가 강제로 못 하는 부분인데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래숙 위원님 말씀하신 오늘 방송한 <인생 내컷>은 중복편 최명주 대표 재방송 부분인데 1인 한 사람에 대해 집중하던 포커스가 시설에 들어온 미혼모들이나 아니면 거기서 생활하는 부분에도 포커스가 맞춰진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중복하고 공동 제작인데 저희가 앞으로 조율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셔널로드...>는 지난번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들 멘트가 많이 없다는 부분도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셔서 유념하고 있고 앞으로 제작하는 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부양보고서>는 라디오 특집을 1년에 하나 정도씩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견 방통위에서 제작 지원을 받은 프로그램입니다. 표준FM 92.5 채널의 청취층에 맞게 맞춤형 콘텐츠로 기획해서 송출을 했고 저도 몰랐던 부분들이 정보로 많이 제공됐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손병우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드라마 타이즈 앞부분은 극단적인 상황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게 복선을 깔아놓는 장치라서 일반적일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상황을 저희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TV나 다른 매체에 나오는 부분은 작품성도 작품성이지만 정보 제공 측면에서도 꽤 유용할 것 같아서 내년에도 관련된 기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양자의 시각도 있지만 피부양자의 시각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TV에서도 정보 제공 측면에서 같이 전달할 수 있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웅 보도국장

윤 위원님께서 <시사M>에서 전동 킥보드 관련한 부분들 말씀해 주셨는데 킥보드 관련 사건들을 많이 보도했고 또 그로 인한 문제점들...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면서 위험한 부분들, 그리고 특히 여러 사용자에 대한 검증이나 대여 부분에서의 부실한 지점들을 일부 지적을 하고 했는데 보도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개인용 이동 장치라고 통칭을 하죠. 그런 종류의 것들이 많이 생기니까 제도적인 미비라든지 문제들도 있지만 또 새로운 교통 문화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세종시청차미디어센터에도 회의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세종 자율주행차 시범 도시로서 자율형 주행차들의 이동 수단이 도입되는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기존의 교통 법규라든지 실제 이용자들의 사용문제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교통수단이 등장하면 우리가 그런 문화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갖고 보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대학 선정 실패에 대한 부분들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지역 대학들이 지금 위기 상황에서 정부 정책들에서 충청권 대학들이 많이 배제가 되더라고요. 지역 정치력의 부재일 수도 있고 지역 대학들이 맞춤형 전략을 만들지 못해서일 수도 있는데 향후 지역 대학들이 어떤 생존 전략을 갖고 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집중적으로 보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도 고민했던 지점인데 성추행 교사 피습 사건을 통해서 이 지역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었죠. 특히 조현병이라든지 흔히 말하는 정신질환자로 인한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가 최근에

가장 첨예한 이슈이기도 하고 정신 질환자를 묻지마 범죄로 연결 짓는 부분은 인권 감수성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위험한 부분이기도 해서 보도를 할 때도 신중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기사를 보다가 심층적으로 가야 될 것 같아서 심층 취재로 돌려서 내일 정도 저희가 보도를 할 생각인데 실제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정신질환자는 나중에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범죄 긴급 상황에서는 경찰이나 의사가 응급진료를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더라고요. 그게 병원에서 정신질환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강제적으로 빨리 수용을 시키는 응급 진료 체계가 있는데 이 부분이 정신질환 응급의료 진료체계라고 불립니다. 의뢰를 했을 경우에 그 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병원에 접수를 하지 않는 비율이 대전이 1위입니다. 꼴찌인거죠. 충남이 2위고요.

그런 환자들을 바로 발견했을 때 경찰이나 법적으로는 준비가 돼 있지만 실제 병원에 빨리 가서 격리될 수 있는 그 분도 보호받아야 될 존재이기도 하니까 제도 자체가 부족한 부분들도 큰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취재를 끝냈고요. 내일 정도에 심층 보도를 할 생각입니다. 특히 최근에 충남대병원에 정신질환 응급의료센터가 구축을 했습니다. 다만 어려움이 진료 인력에 대한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예산의 문제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실제 진료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존에 다른 응급의료를 맡고 있는 의사들이 그것까지도 떠안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기본적인 시스템부터 우리가 갖춰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의 심층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반려견은 박선진 기자가 그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관련 아이тем들을 잘 찾더라고요. 소소할 수 있는데 실제 자녀와의 소통 부재라든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에게는 반려견을 통한 상담 같은 것들이 자신을 털어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이번 기사를 보면서 배웠습니다. 관련 보도를 꾸준히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뜨끔했던 게 자료화면 잘못 쓴 부분인데요. 지금 빨리 조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보도 자체는 단신인데 전세 사기에 대해 시장이 지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책위에서는 시장의 소통 구조에 대해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적한 부분을 결합한 기사였는데 이택구 부시장이 나오면 안 되는 상황이죠. 그 부분들은 편집팀으로 넘어가면서 자료 영상은 편의주의적인 발상일 수 있겠지만 쉽게 쉽게 쓰다 보니까 마감 시간에 쫓기면서 빨리 편집을 하다보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부분인 것 같은데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JMS 재판 같은 경우에는 법관 기피 신청을 의도적으로 해서 7개월째 지연되다가 이번에 속행됐고 사실은 2차 가해에 대한 우려도 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처리했던 기사입니다. 앞으로도 판결이 있고 또 항소심까지 가겠죠. 괴로우시더라도 공익적 차원에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신 영상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동 위원님 말씀해 주신 예산안이 의회에서 의결될 경우에는 확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어떤 예산이 줄어드는지 특히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예산은 계속 감시하는 역할들을 해야 되겠죠. 좋은 말씀이고 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최근에 유성구 주민들이 직접 유성구의 잔존 예산을 어떻게 썼으면 좋겠다 하는 점을 주도적으로 보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물론 구마다 자치회가 활성화된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만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의도적으로 취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예산이 어떻게 세워지고 특히 내년 예산에는 어떤 것이 소홀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표 간사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고 김환균 사장의 마무리 인사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병우 위원장

오늘 시청자위원회에서 알찬 얘기를 많이 나눴고요. 다음 달에도 더욱 알찬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환균 사장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특히 장래숙 위원님의 박순천 선글라스 말씀은 PD들이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시청자들이 봤을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저게 뭐야... 아마 박순천 씨는 현장에서 그 동안 썼기 때문에 의식 못하고 그렇게 있었겠지만 시청자들이 이 장면을 어떻게 볼까 하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제작스태프들인데 그런 것이 완성도이고 시청자들의 마음까지도 헤아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JMS는 더 많이 보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해외 토픽에도 나오고 금산이 유명해지겠네 하는 그런 생각도 하지만 PD수첩에서도 이른바 사이버 종교들을 많이 다뤘습니다. 근데 저는 사이버 종교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어요. 미리 단정하고 가는 거라고 해서 종교학자들 사이에서는 신흥 종교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객관적일 것 같습니다.

<부모부양보고서> 말씀을 하셨는데 PD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그 연령대에 이르러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부모부양보고서를 만든 임세혁 부장은 경우에도 이걸 기획할 때 모친상을 당해서 이 주제가 절절하게 다가왔을 겁니다. 어쨌든 그 나이에 이르러야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주 시청자들이 고령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편성국장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본인일 수도 있고 그 옆에 가족들일 수도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거다. 세브란스에는 노인전문과가

생겼더라고요. 노인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에 시달리게 되는데 젊었을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하는 것 때문에 더 힘들고 내 죽음의 공포가 다가오기 때문에 힘든데 자식들이라도 그분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상태를 온전하게 다 이해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당사자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 가족들도 오늘을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점에서 다루는 콘텐츠가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견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편성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올해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은표 간사

이상으로 11월 시청자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